

융복합시대 산후조리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출산장려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명숙*, 양해솔**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Study on the Influence of Child Birth Promotion Policy Due to postpartum care and Maternity Leave to Economical Activities in the Era of Convergence

Myung-Sook Jang*, Hae-Sool Yang**

Doctor Course, Department of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융 복합시대 여성의 산후조리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이 경제활동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글로벌 산후조리원, *세계 산후조리원, **한 산후조리원, **노블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260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산모들의 설문지 222부를 채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또 현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선행연구와 국, 내외 기존문헌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출산장려정책의 특성요인으로서 사회보험 및 세제, 출산비, 보육서비스, 사회문화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과 출산여성의 경제활동여부와, 매개변수로 육아휴직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 검증하는 연구를 목적으로 두었다.

주제어 : 융 복합시대 여성, 산모, 산후조리, 육아휴직, 출산장려정책, 융, 복합시대 경제활동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look into correlation between Korea's childbirth promotion policy caused from women's maternity leave and economic activity. For the purpose, 300 surveys were distributed to mothers using postnatal 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Listed postnatal care centers such as Babe Glory, Shinsegae, Happy, Miznomall and out of 260, 222 surveys were selected for the research. Several advanced studies regarding child birth promotion policy backed up by current government and related domestic and overseas documents were used as reference. Decisive factors including social insurance, tax, cost for child birth and rearing service, social culture were derived as trait elements for child birth promotion. Mentioned factors along with economic activity by childbearing women were used when setting up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Relation with material leave was employed as parameter for this study of which purpose lies in empirical analysis and investigation.

Key Words : Convergence Era Women, Mother, Postpartum care, Child care leave, Maternity incentives, Convergence Era Economic activity

Received 14 August 2015, Revised 27 September 2015

Accepted 20 Octo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Hae-Sool Yang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Email: hsyang@hoseo.edu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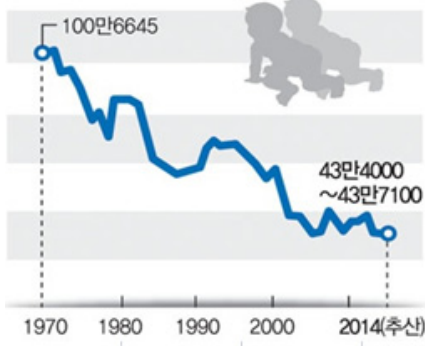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1 연구의 배경

융, 복합시대를 맞이하여 임신, 출산, 산후조리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후조리문화에서 볼 때 대다수 한국 여성들의 체형은 전통적으로 산후조리를 잘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상적인 생활에서 산후병 증후군이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통계청에 따르면 1960년대 6.0명으로 세계에서 높고, 1970년대 4.53명으로 높아 정부는 인구과다를 걱정하여 산아제한을 실시했다. 그러나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nnual number of live births source(unit:Persons)



[Fig. 1] Data : Statistics Korea

융 복합시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급속도로 출산율[1],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 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육아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현 정부는 저 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 예산이 영, 유아 보육에 투입되는 비율 70%에 육박할 정도로 정책의 중심이 보육에만 맞추어져 있어 저 출산의 원인과 [2]. 그에 따른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사항으로 보고 있다.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융 복합시대 산후조리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출산장려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국가정책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선방안을 통해 임신, 출산, 산후조리, 육아휴직, 경제 활동에 대해 걱정하는 산모들에게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로 경제활동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1.1.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의 방법은 산모들을 대상으로 논문작성에 필요한 이론적인 부분은 기존의 선행 연구 자료와 국내외 관련문헌, 각종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표본추출은 2015년 4월01일~05월 31일까지 서울에 위치한 **글로벌 산후조리원, *세계 산후조리원, **한 산후조리원, **노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260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산모들의 설문지 중 총 222부를 채택,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서베이(Survey)법을 선택하였으며 국, 내외 관련 문헌에서 도출한 척도를 기준으로 설문지를 작성했다.

위에서 밝힌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결과와 내용을 요약하고,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국, 내외 산후조리 선행연구

2.1 국내 산후조리

한국형 산후조리란? [3]. 우리 과거 선조들의 산후조리는 한국형 산후조리법으로 일반적인 생활양식에서 반영한 산후조리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개념은 한방 산후조리라고 하면 양방산후조리와 대립되는 경향으로 생각하는 관습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다.

점차 융 복합 시대를 맞아 성별의 구분 없이 경제활동을 촉진해야하고, 이와 맞물려 여성의 리더십 향상으로

우리나라 부모들의 의식구조가 점차 변하고 있다.

산후조리의 정의는[4]. “산후”와 “조리”의 합성어이다. 출산 후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출산 이전의 건강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음식, 활동, 거주, 장소 등을 산모에게 적절하게 제공하여 몸을 회복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성의 출산에서 “산후조리”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회복을 촉진시키고, 출산 후에 건강을 유지, 증진하며 질병의 예방과 산후우울증을 예방한다.

산후조리원의 발생배경은 사회가 발전되면서 점차 산업화와 핵가족으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5]. 늘어남에 따라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주로 친정어머니 또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담당했던 산후조리가, 경제활동으로 인한 직장생활과 양육을 거부하는 신세대 노인들의 증가로 산후조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6년도 우리나라에 처음 생겨난 산후조리원은 재래 보육방법과 산후조리에 만족하지 않는 산모의 요구가 맞물려 생겨난 것이 산후조리원이다[6].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이 함께 생활하며 육아, 산후조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습득하고, 산후조리원은[7].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출산 후 중요한 시기로 산후조리하기에 적합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2.2 국외 산후조리 사례

융 복합시대 저 출산의 의미는 고령사회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임신 과 출산 경제활동에 대한 정책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출산율의 감소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경제활동을 둔화 시킨다. 이에 국. 내외의 산후조리를 살펴본다.

미국의 산후조리는 정상 분만, 2박3일(24시간), 재왕절개 3박4일의 입원기간을 지낸 후 조기퇴원한 모성과 신생아는 통원과 동시에 방문가정 간호체계와 연결되어 방문간호사, 가정간호사, 보건간호사에 의해 가정에서 건강증진 관리를 한다. 신생아와 가족관계 특성을 고려하여 꼭 병원을 가야하는 급성 건강문제가 아니면 병원과 가정의 중간단계인 TIC(Transitional Infant Card)와 같은 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신생아와 가족중심의 건강증진을 시행 한다[8].

또 다른 하나는 산후인력지원 “둘라”로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겨났으며 모유수유를 지원하는 여성들이 대상이다[9]. 현재 가정둘라사업(home doula program) 서비스는 영국, 네덜란드, 이태리 등 많은 유럽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산후조리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즈니스 형태 산후조리원이 없고, 산후 7일정도 민간병원이나 조산원에서 요양하고, 조산원은 법에서 정한 9명 이하의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조산사가 산후 양호지도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조산원[10].에서는 산전관리, 분만개조, 산후관리, 신생아 관리 외에도 건강한 임신을 위한 청소년 성 상담, 부부상담, 모유수유 상담 및 갱년기 여성관리 및 상담, 피임과 임신 등을 비롯하여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중재와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영국의 산후조리는 임신부 출산장소는 99%가 병원이며 1% 만 가정에서 출산을 한다. 병원에서 퇴원한 산모는 산모의 가정 또는 지역 의료인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 산후관리를 받으며 지역 조산사에 의해 방문서비스를 받는다. 법적으로 분만 후 4주 동안은 조산사에게 책임이 있어서 산모의 경과가 순조롭지 않으면 분만 후 4주 까지 조산사가 책임지고 지도한다.

국가보건서비스(NHS)체제[11]. 공립병원 내 모든 의료행위가 무료다. 임신, 출산과 관련해 초음파 촬영, 기형아 검사, 분만, 제왕절개 수술, 미숙아 치료, 입원비, 식사 등 모든 게 무료로 이루어진다.

스웨덴의 산후조리는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가 퇴원하면 병원에서는 지역의 “모성보건센터”와 “영 유아보건센터”에 연락하여 퇴원 직후부터[12]. 산모는 가정에서 산후지도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산욕 12주까지 모성보건센터에 의해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상분만을 한 산모는 병원의 산부인과에 소속된 모성보건센터에 소개되어 관리를 받게 된다.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인별, 의학적 기록이나 기타 정보는 분만한 병원으로부터 “모성보건센터”의 기록은 신생아가 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 보건부로 이관된다.

앞에서 살펴 본 미국, 일본, 영국 및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산후관리 서비스가 주로 조산사에 의해 제공되며, 병원에서 분만 후에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산모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산후요양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후 케어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고 위험산모 또는 신생아에 대하여 지역조산원을 지정, 입원을 통하여 지도 및 상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4 육아기 지원 실태

육아휴직으로[13]. 인한 신규충원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가공무원 선발 규모가 대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 노동법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직장 맘들의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기업들이 이 제도로 인해 여성채용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

미래 우리 차세대를 젊어지고 갈 인재를 낳고 키우는 일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펴고 이를 위해서 기업은 같이 협력해서 모성보호를 통해 낳고 길러지는 일에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국가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에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급여를 지원해 주고 직장 맘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를 지원한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기업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불허하며 퇴사를 종용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내세워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2.5 국내 육아휴직 국가지원

우리나라 육아휴직은 2001년 11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하며 기간은 1년 이내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14]. 사용하려면 조건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10년 제 2차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년~2015년) 시안을 발표하였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고 기존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2차 기본계획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책 수요증가 부분에 집중했다.

정부는 직장여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급여

를 한 달에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통상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도 확충했다.

2.6 국외 육아휴직 국가지원

세계적인 경제대국 미국에는 국가차원의 육아휴직 제도가 없고 12주의 출산휴가를 주는데 무급 육아휴직만 있다. 2014년 9월 호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노동장관회의에서 선진국 중에서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했다.

OECD 국가들의 일과 가정양립을 살펴보면, 미국과 가장 인접한 국가인 캐나다는 최소 15주의 출산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소득이 비슷한 부부의 경우 총 37주의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다.

일본은 14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급여의 6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영국은 최대 52주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데, 이중 39주까지는 유급으로 사용한다. 개발도상국 브라질은 출산휴가를 4개월 제공하고 이기간 동안 월급의 100%를 보장해준다. 네덜란드의 출산휴가는 16주로 100%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며, 스웨덴은 85주간의 휴가를 모든 부모에게 국가가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2.7 경제활동

선진국에서는[15]. 자녀의 출산이나 육아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U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생애 주기 상 출산과 양육문제와 아이의 돌봄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M자형 형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후반까지는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출산 및 육아휴직이 발생하는 30대 초반에 낮아졌다가, 30대 후반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곡선을 만들어낸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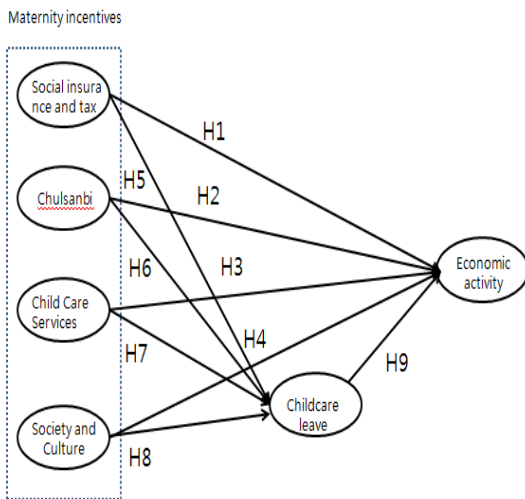
융복합시대 고학력 여성들은 출산 후 일정한 수입과 대우, 정규직이 불가능할 경우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 집안일과 자녀교육에 집중한다[17]. 여성들이 산후조리와 육아휴직 후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의 관계를 정(+의 관계로 돌릴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18].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시적 근로자이다. 한시적 근로자란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직, 인턴사원,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일하며 근로기준법의 해고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3. 연구모형설정 및 가설설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용 복합시대 산후조리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출산장려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본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Fig. 2]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의 설정

- 가설1. 사회보험 및 세제는 경제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출산비는 경제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보육서비스는 경제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사회문화는 경제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5. 사회보험 및 세제는 육아휴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6. 출산비는 육아휴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7. 보육서비스는 육아휴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8. 사회문화는 육아휴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9. 육아휴직은 경제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 산후조리원 산모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화 하여 흔히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량조사를 했고, 조사기간은 2015년 4월 01일~5월 30일까지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마케팅에 흔히 사용하는 서베이법 (survey method)으로 설문지를 사용하고, 조사대상자들과의 면담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총 260부에서 결측값이 있는 37부를 제외, **글로벌 산후조리원, **계 산후조리원, **한 산후조리원, **노블 산후조리원을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3.4 설문문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내용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추출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설문지 구성을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부 리커트(Liert) 5점 척도의 문항을 설정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1>와 같다.

<Table 1> Structure of the questionnaire

(N=222)

Domain	Contents	Number of items
Postpartum care centers	Motives, Terms costs, Usage period, Care center program, Baby watching time, Baby appropriate viewing time, Parenting help much, Newborn Program, Newborn knowledge, Worried after departure.	10

Social insurance and tax support	Maternity incentives, deductions expand health insurance burden, annuity admit, car tax relief (three or more children)	5
Child Care Services	Childcare expansion, additional support two or more children, childcare support Mia-dong, juxtaposed established kindergartens, child care support services extendedr	5
Support Childbirth expenses	Prenatal care costs, strengthen health care, expanded maternal fertility helper supports enhanced, expanded immunization	5
Social Culture	Enlarge maternity benefit, child care is also a variety of hyujikje, return to work support, support jieop friendly, low birth rate and strengthening education	5
Economic activity	Return economy, sustainable economic activity, expanded child care services, maternity medical aid, social culture	5
Parental leave	Holiday work during pregnancy, prenatal care, workplace disadvantages, workplace improvements, concerns that return to work, replacing workforce, parenting support improvements	7
Personal characteristics	Gender, birth way, last school, place of residence, age, income couples, family members, personality, profession	9

4. 연구결과 논의

4.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융복합시대 개인적인 특성으로 성별, 출산방법, 최종 학력, 거주 지역, 연령, 부부수입, 가족구성원, 성격, 마지막으로 직업을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2>과 같이 여성이 215(86.8%), 남성 7명(3.2%)보다 많았고, 연령은 31~35세가 107명(48.2%) 이었고, 26~30세 70명(31.5%), 40세 이상 24명(10.8%), 36~40세 19명(8.6%), 18~25세가 2명(0.9%) 이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22)

Categories	Category	People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Male	7	3.2
		Female	215	96.8
	age	18~25	2	0.9
		26~30	70	31.5
		31~35	107	48.2
		36~40	19	8.6
40~		24	10.8	

4.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출산방법은 자연분만 153명(68.9%), 제왕절개 68명(30.6%), 기타 1명(0.5%)이고, 최종학력은 대졸 94명(42.3%)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 77명(34.7%), 고졸 28명(12.6%), 대학원 22명(22.0%),기타 1명(1.0%) 이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연분만한 사람이 많음을 나타낸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153명(68.9%)로 가장 많고, 그다음 경기도 57명(25.7%), 충청도 8명(3.5%), 경상권 4명(1.8%)이었고, 부부수입은 300~500만원 114명(51.4%)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미만 75명(33.8%), 500~700만원 30명(13.5%), 700만원 이상 3명(1.4%)이다. 우리나라 핵가족 부부의 급여 수준은 300~500만원으로 평균적인조사를 나타내고 있다.

가족구성원은 핵가족이 182명(82.0%)로 가장 많고, 시부모와 동거 26명(11.7%), 친정부모와 동거 12명(5.4%), 기타 2명(0.9%)으로 두 가지의 성격의 응답으로는 첫 번째 성격은 성실하다는 답변이 101명(45.5%), 긍정 68명(30.6%), 완벽 29명(13.1%), 밝음 15명(6.8%)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성격 응답으로는 명랑 51명(23%)로 가장 많이 나왔고 긍정 44명(19.8%), 지적 41명(18.5%), 밝음 38명(17.1%), 성취 23명(10.4%), 성실 19명(8.6%)순으로 처음 성격과 두 번째의 성격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고 두 번째의 성격은 고른 현상을 보였다. 직업은 관리직 113명(50.9%)으로 가장 많았고, 생산직 64명(28.8%), 서비스직 41명(18.5%), 영업직 4명(1.8%)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Structure of the questionnaire (N=222)

	Classification	People	(%)
How birth	Natural childbirth	153	68.9
	Jaewang incision Woman	68	30.6
	Etc	1	0.5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28	12.6
	Professional college	77	34.7
	Graduates	94	42.3
	Graduate school	22	22.0
	Etc	1	1.0
residence	Seoul	153	68.9
	Gyeonggi-do	57	25.7
	Chung cheong	8	3.5
	Gyeong sangwon	4	1.8
Income couples	Less than ₩ 3,000,000	75	33.8
	300~5,000,000 won	114	51.4
	500~7,000,000 won	30	13.5
	More than 7 million won	3	1.4

Family members	Nuclear family	182	82.0
	Parents-and cohabitation	26	11.7
	Living with her parents	12	5.4
	Etc	2	0.9
Character 1	Perfect	29	13.1
	Sincerity	101	45.5
	Positive	68	30.6
	Bright	15	6.8
	Intellectual	5	2.3
	Liveliness	3	1.4
	Perfect	2	0.9
Character 2	Sincerity	19	8.6
	Positive	44	19.8
	Bright	38	17.1
	Intellectual	41	18.5
	Liveliness	51	23.0
	Achievement	23	10.4
	Laziness	4	1.8
Job	Blue-collar	64	28.8
	Executive	113	50.9
	Service industry	41	18.5
	Youngeopjik	4	1.8

4.3 주요변수들의 대한 기술통계

4.3.1 사회보험 및 세제지원조사

산후조리원 산모들을 대상으로 융 복합시대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본의 조사대상자들 응답결과를 각 변인별로 나누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음 <Table 4>과 같다.

<Table 4> Social insurance and tax support (N=222)

Classification		People	(%)	Average	Standard Deviation
Support policies to encourage birth	Not Bad	6	2.7	2.84	.831
	Bad	71	32.0		
	Norma	100	45.0		
	Good	40	18.0		
	Very Good	5	2.3		
Dajanyeo deduction enlarge	Not Bad	14	6.3	2.37	.720
	Bad	119	53.6		
	Norma	80	36.0		
	Good	7	3.2		
	Very Good	2	0.9		
Health insurance burden	Not Bad	2	0.9	2.46	.777
	Bad	18	8.1		
	Norma	95	42.8		
	Good	97	43.7		
	Very Good	10	4.5		
Pension premiums accepted	Not Bad	2	0.9	2.64	.713
	Bad	8	3.6		
	Norma	88	39.6		
	Good	112	50.4		
	Very Good	12	5.4		

Three children or more vehicle tax relief	Not Bad	13	5.9	2.63	.775
	Bad	80	36.0		
	Norma	108	48.6		
	Good	20	9.0		
	Very Good	1	0.5		

4.3.2 경제활동

융 복합시대 출산장려정책으로 산모들이 산후조리 후 경제활동의 복귀를 원하느냐의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경제활동 복귀를 원한다.” 147명(66.2%), “보통이다.” 53명(23.9%)로 이 두 경우를 합하면 200명(90.1%)으로 융 복합시대에 맞게 경제활동에 복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보험 및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면 경제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결과 “원한다.” 137명(61.7%), “매우 원한다.” 40명(18.0%), 이 두 경우를 합하면 177명(79.7%)으로 사회보험 혜택으로 경제활동을 매우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면 경제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한다.” 152명(68.5%), “매우 원한다.” 36명(16.2%), 이 두 경우를 합하면 188명(84.7%)으로 보육서비스 지원확대로 경제활동을 매우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Table 5>과 같다.

<Table 5> Economic activity (N=222)

Classification		People	(%)	Average	Standard Deviation
Return economy	Bad	2	0.9	3.83	.582
	Norma	53	23.9		
	Good	147	66.2		
	Very Good	20	9.0		
	Bad	4	1.8		
Norma	41	18.5			
Good	137	61.7			
Very Good	40	18.0			
expanded child care services	Bad	2	0.9	4.00	.586
	Norma	32	14.4		
	Good	152	68.5		
	Very Good	36	16.2		
maternity medical aid	Bad	2	0.9	3.77	.655
	Norma	72	32.4		
	Good	122	55.0		
	Very Good	26	11.7		
social culture tax relief	Bad	3	1.4	3.82	.643
	Norma	61	27.5		
	Good	132	59.5		
	Very Good	26	11.7		

4.4 측정도구의 검증

4.4.1 잠재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각 구성개념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 4개 문항, 경제활동 5개 문항, 출산 2개 문항, 산후조리 3개 문항, 사회보험 3개 문항, 보육지원 2 문항으로 요인 적재 값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문항을 정제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 값 1.0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은 총 6 개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요인명은 선행연구와 같이 독립변수인 구성요인을 사회문화, 경제활동, 출산, 산후조리, 사회보험, 보육지원으로 명명하였고 종속변수로 경제활동으로 명명하였다. 표본의 적합도 판단으로 KMO는 0.739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을 위한 측정항목간의 상관행렬에 대한 단위행렬여부를 검증하는 Bartlett의 구형 성검정결과 $\chi^2=2686.577$ df=210,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p=0.000$ 으로 나타나 수집된 데이터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 분산 설명력은 62.351%로 나타나 사회문화의 하위요인인 구성으로 5개 잠재요인, 종속변수로 1개 요인으로 구성개념을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명되고,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Table 6> Factors latent variable stars (N=222)

N	M	Factor						Chronbach's α
		1	2	3	4	5	6	
1	1	.758	.038	.115	.064	.056	.011	.890
	2	.809	-.021	.064	.019	-.009	-.085	
	3	.837	.093	.068	.005	.031	-.073	
	4	.866	.055	.060	.030	.107	-.005	
2	1	.027	.659	.062	-.085	-.029	.019	.840
	2	.103	.763	.041	.045	-.034	.000	
	3	-.015	.800	-.009	.056	-.052	-.015	
	4	-.021	.665	.088	-.042	.167	-.044	
	5	.064	.686	.093	-.021	.101	.082	
3	1	.085	.049	.937	-.104	.305	-.072	.742
	2	.071	.056	.906	-.105	.323	-.074	
4	1	-.032	.030	-.074	.782	-.068	-.052	.816
	2	.039	-.026	-.083	.697	-.112	.092	
	3	.075	-.025	-.007	.723	-.042	.133	
5	1	.037	.062	.414	-.112	.793	-.038	.780
	2	.049	.043	.175	-.132	.833	.020	
6	1	-.111	.024	-.033	.198	-.015	.797	.882
	2	-.032	.024	-.176	.176	-.066	.940	
Eigenvalues		4.412	3.066	2.849	2.259	1.461	1.026	
Cumulative variance(%)		62.351%						
KMO=.739, X ² =2686.577, df=410, p=.000, Factor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Potation Method: Varimax a, 9 Factors rotate iteration								

4.4.2 신뢰성 분석

신뢰성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설문응답자로부터 정확하게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Chronbach's α (Alpha) 계수를 이용하였다. Chronbach's α(Alpha) 계수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하여 가능한 모든 반분신뢰도를 구하고 이들의 평균치를 산출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Chronbach's α (Alpha)계수가 0.5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Hair, Anderson, Tatham, and Black, 2006). 탐색적 요인 분석한 잠재 요인들을 신뢰도 분석한 결과 모든 잠재 요인은 기준치인 0.5이상을 Chronbach's α 계수가 상회하고 있어 신뢰성이 판명되었으며, 분석결과 다음<Table 6>과 같다.

4.4.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에 의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Table 7>와 같다.

<Table 7> Correlation between latent variables

	1	2	3	4	5	6
1	1	.092	.192**	.171*	.049	-.100
2	.092	1	.169*	.121	-.031	.025
3	.192**	.169*	1	.581**	-.134*	-.077
4	.171*	.121	.581**	1	-.184*	-.126
5	.049	-.031	-.134*	-.184*	1	.280**
6	-.100	.025	-.077	-.126	.280**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5. 결론 및 제언

5.1 연구 결론 및 시사점

융복합시대 여성의 산후조리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로 대상자들의 출산방법은 자연분만이 제왕절개 보다 월등히 많

왔고 이는 모체질환이 있거나 태아 체중이 늘지 않거나 양수가 부족한 문제가 없다면 자연분만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활동부분에 보육비 지원활동이 충분치 않다가 55%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모의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는 충분치 않다가 36.8%로 나와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네덜란드는 여성을 경제활동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주일에 3, 4일 일하는 파트타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집중도가 훨씬 높고, 풀타임과 파트타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 생산성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융 복합시대에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임신, 출산, 산후조리,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산후조리와 육아휴직 문제를 국가에서 적극 개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있어야 경제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융 복합시대 여성의 산후조리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출산 장려정책이 경제활동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았지만 출산장려정책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산모의 경제 상태나 가족의 협력여부 등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인 산모들의 출산 전 직종, 직무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명 산모의 출산 전 업무에 따라 그리고 경제활동의 여건에 차이가 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능한 육아휴직의 기능적 부분도 포함하고 항목의 이해성을 확보하여 동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S

[1] Yong-Joo Yo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rthrate and childcare policy to reduce the burden of nurture", Kookmin University, Graduate, 2013.

[2] Species-Cancer Choi, road-hee changes. "The Research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Support Policy of Low Fertility Aging Society", Korea Society of child care support, p.65~88, 2005.

[3] Sang-Woo Kim. "Korean postpartum", Munuigwa University Bundang Cha Hospital of Fortune, 2005.

[4] Public postpartum care centers report, "Public postpartum care centers installed and operational feasibility repor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3.

[5] Hye-Hye Kim. Na-Kun Lee. "The Study on the Space Organization and Programming of Postpartum Care Center",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001.

[6] Eun-Gwang Yoo. "Method and system maintenance for the role of postpartum care centers", Korea Society for Maternal Health Conference 2001 9th retardant home. 2001.

[7] Year-Jung Kim, Mi - La Jung. "A Study on the Change of postpartum Care in Korea", p217, 2012.

[8] Na-mi Hwang, In-young Lee. Young-Taek Park, Dong-Woo Seo. "Postpartum care centers operate and manage user status and institutional measur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1.

[9] Raphael D. The Tender Gift : Greastre eding, Englewood Dliiffs, NJ : Prentice Hall, 1973.

[10] Statistical Offi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2015.

[11] Changes to the National Health Service (Procurement, Patient Choice and competition) Regulations, 2013.

[12] Seo-Nok Kim. Postpartum care centers established control measur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1.

[13] Ji-Hye Lee. "The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2013.

[14] Ministry of Labor, 2010 Employment Insurance Guide, 2010.

[15] Ji-Hye Lee.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Sookmyung University, Graduate, 2014.

- [16] Y. S. Kim. “The social rights of female non-regular workers and gender regime in Korea. Social Security Study”, vol. 26, no. 1, pp. 261~287. 2010.
- [17] Ji-Young Yoo. “Non-regular Female Workers toward Convergence Era: Description and Unemployment Assistance”, Korea Society of Digital Policy, v.13, no.7, pp.33~45, 2015.
- [18] Sang-Sin Kim. “The Empirical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WLEP and Fertility : Focusing on Compatibility of Work and Famil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 Society, Vol. 14, No. 11 pp. 5508~5513, 2013.

장 명 숙(Jang, Myung Sook)



- 2002년 2월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학사)
- 2013년 2월 :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 창업학과 졸업(석사)
- 2013년 3월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6기)
- 1981년 3월 ~ 1989년 5월 : 서울의료원, 간호사
- 1993년 1월 ~ 1994년 12월 : 연세대 호스피스, 간호사
- 2001년 6월 ~ 2004년 6월 : 천애재활원 간호사
- 2009년 9월 ~ 현재 : 베베글로리 산후조리원 원장
- 관심분야 : 산후조리원, 경영지도, 소상공인창업, 융복합
- E-Mail : myung8532@naver.com

양 해 술(Yang, Hae Sool)



- 1975년 2월 :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학사)
- 1978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정보처리학과 졸업(석사)
- 1991년 3월 : 日本 오사카대학 정보공학과 SW공학 전공(공학박사)
- 2006년 2월 : Kazakhstan 유러시안 경제대학(명예경영학박사)
- 1975년 5월 ~ 1979년 6월 : 육군중앙경리단 전자계산실 시스템분석장교
- 1980년 3월 ~ 1995년 5월 : 강원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교수
- 1986년 12월 ~ 1987년 12월 : 日本 오사카대학 객원연구원
- 1995년 6월 ~ 2002년 12월 : 한국소프트웨어품질연구소 소장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호서대학교 창업대학원 원장
- 2012년 11월 : 대통령표창(SW산업발전유공) 수상
- 1999년 11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SW공학(특히, SW품질보증과 품질평가, 품질감리 및 컨설팅, SI), SW프로젝트관리, 품질경영
- E-Mail : hsyang@hoseo.edu